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신명기·스바냐 —

허신욱*

1. 신명기 1:16-17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16 וְאַעֲגֹנָה אֶת-שִׁפְטִים בְּעֵת הַהוּא לְאמֹר שְׁלֹט בֵּין-אֲתִיכֶם
וּשְׁפָטִים אֶיךָ בֵּין-אֲתִיכֶם וּבֵין-אֲתִיכֶם וּבֵין גַּרְבָּה: 17 לְאַחֲתֵיכֶם בְּנִים
בְּמִשְׁפָט בְּקָרְבָן פְּנַדֵּל תְּשֻׁמְחוּ לֹא תִּנְוֹרְוּ מִפְנִיר-אֲתִיכֶם בְּיַד הַמִּשְׁפָט
לְאֱלֹהִים הוּא! רַדְכְּרָב אֲשֶׁר יִקְשָׁה מִכֶּם תִּקְרְבּוּ אֵלָי לְשֻׁמְחוֹן:

『개역개정』

16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
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
게도 그리 할 것이라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
이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
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
리라 하였고

『새번역』

16 그 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
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17 재판은

* Emory University에서 Hebrew Bible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원,
영동교회(서울 신길동) 위임목사. shinhur@gmail.com.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 오시오. 내가 들어 보겠소.’

『공동개정』

16 동시에 나는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 동족들 사이에 소송하는 일이 있거든 잘 듣고 난 다음에 본국인들끼리의 사이뿐 아니라, 본국인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과의 사이도 공정하게 재판해 주어야 한다. 17 재판할 때에 한 쪽을 편들면 안 된다.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똑같이 들어주어야 한다. 재판이란 하느님께서 봄소하시는 일이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판결하기에 벅찬 사건은 내가 들어줄 터이니 나에게 올려라.’

『새한글』

16 “그때 그대들의 재판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나그네 사이에서도 공의롭게 판가름하십시오. 17 판가름할 때는 걸모습을 보고 편들지 마십시오. 힘없는 사람의 말이든 힘 있는 사람의 말이든 마찬가지로 그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대들에게 버거운 사건은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그 내용을 잘 들어 보겠습니다.’

ESV

16 And I charged your judges at that time, ‘Hear the cases between your brothers, and judge righteously between a man and his brother or the alien who is with him. 17 You shall not be partial in judgment. You shall hear the small and the great alike. You shall not be intimidated by anyone, for the judgment is God's. And the case that is too hard for you, you shall bring to me, and I will hear it.’

NET

16 I furthermore admonished your judges at that time that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issues among your fellow citizens and judge fairly, whether between one person and a native Israelite or a resident foreigner. 17 They must not discriminate in judgment, but hear the lowly and

the great alike. Nor should they be intimidated by human beings, **for judgment belongs to God**. If the matter being adjudicated is too difficult for them, they should bring it before me **for a hearing**.

ZB

16 Und damals gebot ich euren Richtern: **Hört** eure **Brüder an**, und richtet gerecht im Streit, den einer mit einem Bruder oder mit einem Fremden hat. 17 Ihr sollt richten ohne Ansehen der Person, **den Kleinen sollt** ihr **anhören wie den Grossen**, und ihr sollt euch vor niemandem fürchten, **denn es ist Gottes Gericht**. Ist euch aber ein Rechtsfall zu schwer, so legt ihn mir vor, und ich **will ihn anhören**.

LB

16 Und ich gebot euren Richtern zu jener Zeit und sprach: **Hört** eure **Brüder an** und richtet recht zwischen jedermann und seinem Bruder und dem Fremdling bei ihm. 17 Ihr sollt beim Richten nicht die Person ansehen, sondern **sollt den Kleinen hören wie den Großen** und vor niemand euch scheuen; **denn das Gericht ist Gottes**. Wird aber euch eine Sache zu schwer sein, die lasst an mich gelangen, damit ich sie **höre**.

BB

16 Euren Richtern gab ich damals die folgende Anweisung:
»**Hört** eure **Brüder an** und fällt ein gerechtes Urteil! Es darf keine Rolle spielen, ob ein Mann mit seinem Bruder oder mit einem Fremden im Streit liegt. 17 Wenn ihr Recht sprecht, darf es keine Rolle spielen, wen ihr vor euch habt. Ihr **sollt die kleinen Leute** genauso **anhören wie die, die Macht und Einfluss haben**(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Fürchtet euch vor niemandem — **denn beim Richten seid ihr Gott verpflichtet**(왜냐하면 재판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Ist euch ein Fall zu schwierig, legt ihn mir vor. Ich **werde** mir die Sache **anhören**.«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새롭게 번역한 까닭, 그리고 가르침

(1) **שׁמַע**(샤모아으)

『새한글』은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로 번역하였습니다.

우선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원문의 직접 인용문 첫 번째 문장을 조건절로 번역하고, 두 번째 문장부터 주절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ESV, NET, ZB, LB, BB는 모두 직접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절로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동사는 칼 부정사 절대형이고, 두 번째 문장의 주동사는 칼 완료형입니다. 이 두 문장이 접속사 『(바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는 다르지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첫 문장의 어조가 두 번째 문장까지 이어집니다. 16하반절에서 시작하는 직접 인용문은 16절과 17절을 이끄는 문장의 동사 **גַּזֵּל**(짜바)로 소개되고 있기에,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ESV와 NET의 번역과 동일하게 직접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절로 보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עָמֹש**(샤마으) 동사의 일차적인 뜻은 ‘듣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서에서 듣는 행동은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잘’이라는 의미를 첨가하여, ‘잘 들어 보십시오’(16, 17절), ‘잘 들어 보겠습니다’(17절)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날 듣는 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듣는 이는 적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말만 먼저 하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첫 번째 덕목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행동을 강조하여 번역한 『새한글』은 독자들로 하여금 듣는 모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2) **בְּנֵי-אֲחֵינוּ**(벤-아헤愧)

원문의 뜻은 ‘너희들의 형제들 사이’이지만 문맥상 이 단어는 단순히 남성만 의미하지 않고, 여성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번역에 반영하여 ‘그대들의 형제자매들 사이’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개정』과 ESV는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형제’(『개역개정』), ‘brothers’(ESV)로, 『새번역』과 『공동개정』, 그리고 NET는 결을 같이 하여 ‘동족(들)’(『새번역』, 『공동개정』) 또는 ‘fellow citizens’(NET)로 번역합니다. NET의 노트를 참고할 때,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하기 위해 ‘citizens’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한글』은 ‘형제자매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이들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있습니다. 여성들 간의 고소도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건도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법정에서도 암묵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בְּנֵי אַחִיכָּם**(벤-아해켐)을 ‘형제자매들 사이’로 번역한『새한글』은 재판정에 여성도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공정한 재판과 판단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כָּפָרֶת כָּפָרֶת**(까蛩 까蛩)

여러 한글 번역본들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귀천을’(『개역개정』),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새번역』), ‘세력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공동개정』). 위 예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한글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순서와는 달리 **לְדָבָר**(가돌)을 먼저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귀천’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듯이 **לְדָבָר**(가돌)이 **כָּפָרֶת**(까蛩)보다 먼저 언급되는 한국인의 정서가 반영된 듯합니다. 영어와 독일어 번역본들은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살려 **כָּפָרֶת**(까蛩)을 **לְדָבָר**(가돌)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새한글』은 세력이 있는 사람을 앞에 두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힘없는 사람의 말이든 힘 있는 사람의 말이든’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כָּפָרֶת**(까蛩)과 **לְדָבָר**(가돌)의 순서를 유지하는 번역을 통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 변화를 꾀하고, 힘 있는 자를 힘없는 자보다 우러러보는 사회 통념을 바꾸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에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의 말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힘없는 사람의 처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의 말을 힘 있는 사람의 말과 동일하게 고려하라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힘없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경험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4) **כִּי הַמִּשְׁפְּט לְאֱלֹהִים הוּא**(키 함미쉬팔 레로힘 후)

이 문장은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연속적인 명령들 다음에 동기절로 등장합니다. 공정한 재판의 이유가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한글』은 원문의 문장을 순서를 유지하여 원문의 논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개역개정』, 『새번역』, NET)라는 문장 일치 번역을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의미 중심의 번역을 함으로써,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이는 재판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이라는 일, 즉 행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재판정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재판관은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곁모습을 보고 편들지 않으며, 힘없는 사람의 말이든 힘 있는 사람의 말이든 동일하게 잘 들을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새한글』을 읽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2. 신명기 6:4-5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4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5 וְאַהֲבָתְךָ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פִּשְׁעֶךָ וּבְכָל־מִلְּמָדֶךָ:

『개역개정』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
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새번역』

4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
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5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을 사랑하십시오.

『공동개정』

4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5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새한글』

4 들으십시오, 그대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5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
랑하도록 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으로요.

ESV

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NET

4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5 You 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your whole
mind, your whole being, and all your strength.

ZB

4 Höre, Israel: Der HERR, unser Gott, ist der einzige HERR.
5 Und du sollst den HERRN, deinen Gott, lieben, von
ganzem Herzen, von ganzer Seele und mit deiner ganzen
Kraft.

LB

4 Höre, Israel, der HERR ist unser Gott, der HERR ist einer.

5 Und du **sollst** den HERRN, deinen Gott, **lieb** haben **von ganzem** Herzen, **von ganzer** Seele und **mit all** deiner Kraft.

BB

4 **Höre, Israel: Der HERR ist unser Gott, der HERR allein!**

5 Du **sollst** den HERRN, deinen Gott, **lieben mit** deinem **ganzen** Herzen, **mit** deiner **ganzen** Seele und **mit** deiner **ganzen** Kraft.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새롭게 번역한 까닭, 그리고 가르침

(1) **אל שְׁמַע**(쉐마으 이스라엘)

『새한글』은 히브리어 어순을 반영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신명기 6:4는 **אל שְׁמַע**(쉐마으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를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2인칭 단수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한글』 번역 방침을 따라서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자가 아니라 명령을 직접 받는 당사자들이므로, 원문에는 없지만, ‘그대’라는 말을 첨가하여 첫째 동사가 2인칭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명령의 직접 수용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동개정』 역시 이스라엘 앞에 ‘너’라는 2인칭 지시사를 첨가하였습니다.

‘들으십시오’라는 직접 명령어가 원문과 동일하게 신명기 6:4에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독자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강력한 당위성을 경험합니다. ‘그대 이스라엘!’이라는 호격을 통해 오늘날의 독자가 당시 이스라엘과 동일시되면서 ‘들으십시오’라는 명령을 독자 자신에게로 내재시킵니다. 중요한 히브리어 상용어구로 암기된 **אל שְׁמַע**(쉐마으 이스라엘)에 부합하는 ‘들으십시오, 그대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이 독자들의 입과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2) **יהוה אל הָיָה אֶחָד**(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문장의 번역은 각 단어들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번역이 가능합니다.

가. **יהוה**(아도나이) = **אל הָיָה**(엘로헤누), **יהוה**(아도나이) = **אחד**(에하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새번역』, NET, LB가 이를 채택합니다.

나. **יהוה**(아도나이) = **אל הָיָה אֶחָד**(엘로헤누), **יהוה**(아도나이) = **אחד**(에하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공동개정』, BB가 이를 채택합니다.

다. יְהוָה אֱלֹהֵינוּ(아도나이 엘로헤누) = יְהוָה אֶחָד(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개역개정』과 ZB가 이를 채택합니다.

라.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 יְהוָה אֶחָד(에하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ESV가 이를 채택합니다.

『새한글』은 세 번째 번역을 따라, 첫 번째 두 단어 יְהוָה אֱלֹהֵינוּ(아도나이 엘로헤누)를 주어로 봅니다. 그리고 원문의 단어 순서를 한글 번역에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는 ZB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각주에 첨언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이 그러하십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뿐이십니다.’ 이 두 번역은 단어의 조합이 위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한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하고 있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강조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언급하는 신명기 4:35, 39와도 연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선언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이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외에 그 어떤 신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될 수 없다는 유일신 사상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읽고 들음으로 인해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중심에 내재화될 것입니다.

(3) בָּרָא הַבָּרָא(브아합타 … 브콜)

원문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새한글』은 두 문장으로 구분하여 번역합니다. 이는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두 가지 모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강조는 사랑에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강조점을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이루어냅니다.

전치사구를 이끄는 בָּרָא(브콜)을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동사 ‘다하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됨으로 인해 원문의 강조점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새한글』은 원문의 순서를 따라 בָּרָא(아하브)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사랑하도록 하십시오.’로 번역하며 문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세 번 연속적으

로 나타나는 ‘브콜’을 ‘온’이라고 번역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명령하고, 그 사랑의 방식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것이어야 함을 순차적으로 번역문에 나타냅니다.

또한 **אַהֲרֹן**(아합타)를 ‘사랑하라’(『개역개정』), ‘사랑하십시오’(『새번역』), ‘사랑하여라’(『공동개정』)가 아니라 ‘사랑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과정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사랑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신명기 6:5를 6:4와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할 때, ‘들으십시오’라는 명령과 더불어 ‘사랑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명령이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행동이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걷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3. 신명기 10:16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ומלחת את עורת לבבכם וערכם לא תקשו שוד:**

『개역개정』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새번역』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
을 부리지 마십시오.

『공동개정』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
라.

『새한글』

그러므로 그대들의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 내고,
그대들의 목을 더는 꽂꽂이 하지 마십시오.

ESV

Circumcise therefore the foreskin of your heart, and be
no longer stubborn.

NET	Therefore, <u>cleanse your hearts</u> and stop being <u>so stubborn!</u>
ZB	So <u>beschneidet eure Herzen</u> , und seid <u>fortan</u> nicht <u>mehr widerspenstig</u> .
LB	So <u>beschneidet</u> nun <u>die Vorhaut eurer Herzen</u> und seid <u>hinfort</u> nicht <u>halsstarrig</u> .
BB	Aber bei euch ist es so, als ob ihr <u>eine Vorhaut am Herzen</u> habt. <u>Beschneidet</u> sie und seid nicht <u>länger eigensinnig</u> !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새롭게 번역한 까닭, 그리고 가르침

(1) **וְמִלְאָת אֶת עַרְלָת לְבָבְכֶם**(우말템 엣 아르라트 레바브캠)

원문의 주어는 **וְמִלְאָת**(우말템)의 동사어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작의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동작의 주어를 명시하였지만, 『새한글』에서는 원문의 의도를 살려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동사에 의미가 내포된 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할례하다’라는 단어 대신 ‘자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실제 할례를 행할 때 칼을 대는 의미를 내포시켰고, 자른 후 보관하지 않고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잘라 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וְמִלְאָת עַרְלָת לְבָבְכֶם(아르라트 레바브캠)은 ‘너희 마음의 포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한글』 번역 지침에 따라 이인칭 복수 **םְכֹךְ**(캠)은 존칭어인 ‘그대들’로 번역하였습니다. **הָעֲרָלָה**(아를라)는 성기의 바깥 포피를 의미하므로 『새한글』에서 **מוֹל עַרְלָה**(물 아를라)는 ‘살가죽을 잘라 내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유사한 표현이 창세기 17:11, 14, 23-25; 레위기 12:3; 예레미야 4:4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마음에 할례를 행하다’라는 모호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성기의 포피가 성기를 덮고 있는 이미지를 마음에 적용하여, ‘마음을 덮은 살가죽’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 내라’라는 문장은 독자들의 머릿속에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돋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덮은 살가죽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살가죽을 잘라 내어야지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낼 때,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

린 그 모습이 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 감추는 모습의 대표격입니다.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 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살가죽을 잘라 내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자 결심하도록 돕습니다.

(2) **עַרְפָּכָם** … **עֹד** (오르프켐 … 오드)

원문에서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עַרְפָּכָם** (오르프켐)입니다. **עֹד** (오드)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문장 안에서 이 두 단어의 순서를 감안하여 번역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עֹד** (오드)를 가장 앞에 위치시켜 문장의 강조점이 ‘고집스러움에’에 있지 않고, ‘반복되는 잘못의 중지’에 있게 됩니다. **עַרְפָּכָם** (오르프켐)의 번역 ‘그 대들의 목’을 두 번째 문장의 가장 앞에 둠으로써 앞 문장의 ‘마음’과 상응하여 심미적으로 균형 잡힌 번역이 됩니다.

또한 ‘다시’(한글 번역본들)는 ‘(1)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2)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3) 다음에 또 (4) 이전 상태로 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새한글』)는 ‘(1) 계속하여 (2) 그 위에 보태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껌질을 잘라 내고 목을 꽂꽂이 했던 고집스러움을 다시 또 하지 말라는 의미, 즉 잘못된 것을 반복하여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상태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됨을 내포하기 위해 ‘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죄가 확장되는 위험이 있음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목을 꽂꽂이 하는 불순종의 행동은 반복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한 반복과 악화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4. 스바냐 3:16-17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16 בַּיּוֹם הַהוּא יֹאמֶר לִירוּשָׁלָם אֶל-חַיְרָא צַיֵּן אֶל-רִרְפֵּה יְהִוָּה:
17 וְהִנֵּה אֶל-הַיּוֹם בְּקָרְבֵּךְ גָּבוֹר יוֹשִׁיעַ יְשִׁישׁ עַל-יךְ בְּשִׁמְחָה
יְהִירִישׁ בְּאַחֲבָתוֹ גַּיְל עַל-יךְ בְּרָגָה:

『개역개정』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시며 너를 잡잡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
 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새번역』

16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17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공동개정』

16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17 너를 구해 내신 용사 네 하느님 야훼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새한글』

16 그날에 예루살렘을 두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마라! 17 여호와 시온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는 용사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자신의 사랑으로써 너를 침묵하게 하신다. 너를 두고 기뻐 외치신다.”

ESV

16 On that day it shall be said to Jerusalem: “Fear not, O Zion; let not your hands grow weak. 17 The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a mighty one who will sa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he will exult over you with loud singing.

NET

16 On that day they will say to Jerusalem, “Don’t be afraid, Zion! Your hands must not be paralyzed from panic! 17 The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he is a warrior who can deliver. He takes great delight in you; he renews you by his love; he shouts for joy over you.”

ZB

16 An jenem Tag wird zu Jerusalem gesagt: Fürchte dich nicht! Zion, mögen deine Hände nicht erschlaffen! 17 Der HERR, dein Gott, ist in deiner Mitte, einrettender Held(구원하시는 용사), voller Freude frohlockt er über dich, in seiner Liebe schweigt er(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침묵하신다), mit Begeisterung jubelt er über dich.

- LB 16 Zur selben Zeit wird man sprechen zu Jerusalem:
Fürchte dich nicht, Zion! Lass deine Hände nicht sinken!
- 17 Denn der HERR, dein Gott, ist bei dir, **ein starker Heiland(강한 구원자)**. Er wird sich über dich freuen und dir freundlich sein, **er wird dir vergeben in seiner Liebe**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und wird über dich mit Jauchzen fröhlich sein.
- BB 16 Dann sagt man zu Jerusalem: »**Fürchte dich nicht, Zion!** Verlier nicht den Mut!« 17 Der HERR, dein Gott, ist in deiner Mitte, er ist **ein starker Held(강한 용사)**, der Rettung bringt. Er freut sich sehr über dich und **geht in seiner Liebe über deine Fehler hinweg**(그는 자신의 사랑으로 너의 잘못을 지나쳐 가신다). Er jubelt über dich voller Begeisterung.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새롭게 번역한 까닭, 그리고 가르침

(1) אל-티라이 찐온(알-티라이 찐온)

원문에는 **אל-תִּירְאֵי צִיּוֹן**(알-티라이 찐온)에 분리 구두점 ‘.’(아트나흐)가 있어서 이 어지는 찐온(찌온)은 다음 동사인 **אל-יָרַפְאָה**(알-이르푸)와 연결됩니다. 물론 명령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צִיּוֹן**(찌온)으로 부르기에 이 단어는 앞뒤 동사에 의미적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시온이라는 사실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기에 이를 번역에도 살렸습니다. 따라서 『새번역』(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동개정』(시온아, 두려워 마라.), ESV(Fear not, O Zion), NET(Don’t be afraid, Zion!), LB(Fürchte dich nicht, Zion!), BB(Fürchte dich nicht, Zion!)와 달리, 『새한글』은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로 번역하였습니다. 낭독을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를 읽은 후에 입을 닫고 청중을 보면서 시간을 가진 후에, 호흡을 하고 ‘시온아, 너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마라!’를 읽는다면 그 느낌이 더욱더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어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두점에 맞추어 읽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גְּבֹר(끼뽀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גְּבֹר(끼뽀르)를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끼뽀르’의 일차적 의미는 ‘용사’입니다. 『새한글』에서는 이를 일차적 의미인 ‘용사’로 번역하였습니다. 『공동개정』도 이를 따릅니다. 스바냐서는 예루살렘에 임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적국의 침입에 의해 실현됩니다. 이런 심판 예언 다음에 스바냐 3:14 이하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하시는 גְּבֹר(끼뽀르)는 전장에서 침입국을 무찌르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번역에 반영하여 גְּבֹר(끼뽀르)를 ‘전능자’가 아니라 ‘용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는 용사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독자들은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었을 때 기뻐 외치시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3) יְהִרְיָשׁ בְּאַהֲבָתוֹ(야하리쉬 브아하바토)

『새한글』은 이를 ‘자신의 사랑으로써 너를 침묵하게 하신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너를’은 원문에 없지만 앞뒤 문장에 있는 לֵך(알라이크)를 근거로 하여 행동의 목적어가 ‘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שָׁרֵך(하레쉬)의 히필 형태인 יְהִרְיָשׁ(야하리쉬)는 ‘침묵하다, 잠잠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침묵은 신뢰를 내포합니다. 출애굽기 14:14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로 인해 잠잠히 있기를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원문상 잠잠히 있는 주체가 3인칭이기에 이는 여호와를 받습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17절을 16절과 연결해 읽을 때, 침묵의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읽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랑으로써 너를 침묵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에게 처음 명령된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는 용사이신 여호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잠잠히 있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14와도 상응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칠십인역과 폐쉬타를 따라서 יְהִרְיָשׁ(야하리쉬)를 (예하드쉐크)로 고쳐 읽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분(여호와)이 너를 새롭게 하신다’입니다. 『새번역』, NET가 이 입장을 취합니다. 이 또한 가능한 읽기 이기에 『새한글』 각주에 소개하였습니다.

『새한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침묵하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을 잡아우고,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신명기 1:16-17, 신명기 6:4-5, 신명기 10:16, 스바냐 1:16-17.

New Korean Translation, Deuteronomy 1:16-17, Deuteronomy 6:4-5,
Deuteronomy 10:16, Zephaniah 1:16-17.

(투고 일자: 2025년 3월 4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5월 19일)